

호남·수도권 경선 앞둔 민주 전대… ‘신천지’ 공방으로 얼룩

김민석, 호남 반도체산업 육성 강조
정청래, 전북서 간담회 등 현장 행보
신천지 논란 커지며 네거티브전 가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각각 수십만명의 권리당원이 있는 호남(15일)과 서울·경기(16일) 순회 경선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 대표 후보, 이희자 한국근우회장이 찍은 사진이 후보 간 공방으로 번지며 선거 후반 기에도 신천지 관련 논란으로 전당대회가 얼룩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 충청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 누적 득표 결과 김민석 후보가 46.01% (9만5821표), 정청래 후보가 44.53% (9만2735표), 송영길 후보가 9.47% (1만9715표)를 얻어 김 후보와 정 후보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몰려 있는 호남과 서울·경기 순회경선이 남아 있는 가운데, 각 후보는 호남과 수도권에 역량을 총집중하며 주말에 있을 순회경선을 대비했다.

김민석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호남대환 메가프로젝트’로 명명하며 “호



지난 22대 총선 국면이던 2024년 3월 18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당 대표)과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마포구 소재 한 음식점에 들러 신천지와 정계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희자 한국근우회장과 찍은 사진. 친청(친정청래)계에서 전당대회 중 해당 사진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이 대통령과 신천지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남에서 충청·영남과 전국으로 반도체와 AI(인공지능)가 확산되는 ‘호남대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민주당 제1과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후보는 6·3 지방선거 당시 공을 들인 전북을 찾아 청소년동자를 만나고 농업인과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 행보를 보였다.

송영길 후보는 호남에 들어설 반도체 팹(공장)이 원자력 발전이 없으면 불가능

하다며 전남 영광 한빛 원자력 본부를 방문했다.

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김 후보 측이 전당대회 초반 정 후보 측을 겨냥해 띄웠던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신천지 관련 의혹이 제기되며 후보 간 분열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문제가 된 건 한 장의 사진인데, 친청(친정청래)계가 22대 총선 당시인 지난

2024년 3월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을 방문해 신천지와 정계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희자 한국근우회장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사진은 정청래 후보의 측근인 이지는 마포구 당협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친여 성향 유튜브인 박시영TV에 출연했을 때 공개됐다. 이 위원장은 방송에서 “공식 행사에 이 회장과 함께 찍힌 단체사진 하나로 정청래와 신천지가 개입돼 있다는 근거라면 이 사진도 이 대표(대통령)와 (신천지가) 관련이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2019년 이 회장이 참석하고 근우회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축사를 해 신천지와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문제가 된 사진은 원래 정 후보도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친청계가 이를 정 후보를 잘라내고 공개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과 만나 “그자리에 (당시 당대표였던 대통령을) 모시고 갔던 연유라든가 또는 이 문제가 쟁점화된 이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방송에 관여돼 있다면 적어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선 정리하는 것이 상식과 예의에 맞다”며 “(당시)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모시고 가

니까 가서 사진을 하나 찍었을 것”이라고 신천지 연계 의혹에 선을 그었다.

신천지 사진 공방은 당 내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알려진 문진석 의원은 친청계를 겨냥해 “이제 대통령까지 음해 공작의 도구로 활용하나.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질도 저런 저질스러운 공작이 없다. 사진을 잘라내 골프를 쳤다며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을 보는 듯 하다”며 “당이 즉각 고발 조치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대통령을 신천지와 엮는 저질 삼류 정치공작,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지는 위원장은 해당 사진은 친청계에서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잘라낸 사진이 아니며, 이희자 회장 본인이 이 대통령과 자신을 강조하기 위해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인 한민수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가)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이고, 총리까지 하신 분이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한다”며 “근거를 대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신천지 개입설은 정 후보를 향한 김 후보 측의 흠집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여야, ‘송파 투표용지 재검표’ 신경전

민주 “18일 예정대로 재검표 진행해야”
국힘 “선관위 특검 출범 후 일정 조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0일 3차 청문회를 연 가운데, 여야 위원들은 오는 18일로 잠정 합의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3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대로 오는 18일 올림픽공원 내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출범 이후 수사와 연계해 재검표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8일로 예정돼 있는 올림픽공원 재검증 (안건을) 처리하고 그 다음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여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 뉴시스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국민의힘이) 왜 자주 특검과 연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이 말 바꾸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합의해

공개 검증 일정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곧 특검이 발족되고 진행할 것인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지금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재검표 일정 등에 대한 간사 간 협의를 요청한 후 정회를 선언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국조특위 의원들은 국회 소동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분명하게 밝힌 것이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한 국조특위의 연장”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은 18일로 연기된 송파 (개표소) 재검증을 사실상 무산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재검증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특검이 출범하면 또 무슨 핑계를 달지 이제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라며 “국조특위 연장 전에는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더니, 특검법이 합의되니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하고, 특검 임명 시점이 대략 예측되는 지금은 특검과 합의해 일정을 정하자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목적은 단 하나”라며 “국민의 참정권 훼손이라는 이번 사태의 진실 규명엔 관심이 없고, 그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기대어 이번 사태를 정쟁화하는 것”이라고 보냈다.

/ 박태홍 기자

李 지지율 43.3% 취임 이후 최저치

민주-국힘 지지율 격차 7.0%p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3.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여전히 오차범위 밖이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6%포인트(p) 내린 43.3%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상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8주째 4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에 이어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53.0%로 2.5%p 상승했다. ‘잘 모름’은 3.6%였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및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군사관학교 쿠데타 발언 등의 여파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이 중첩되면서 서울·보수층·고령층 중심으로 이탈이 일어났다는 게 리얼미터 측 설명이다. 실제로 권역별로는 서울·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에서 하락했고, 연령별로는 60~70대에서 하락이 있었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비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44.6%, 국민의힘은 37.6%로 양당 간 격차는 7.0%p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에 비해 지지율이 0.5%p 내렸고, 국민의힘은 0.1%p 하락했다. 지난주(7.4%p)와 마찬가지로 오차범위(±3.1%p) 밖 차이 다.

/ 서예진 기자 sy@

국민의힘, 조강특위 재정비… 사고 당협 정비 착수

당 쇄신안 발표 26일로 연기

국민의힘이 10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 인선을 의결하고 사고 당협 정비에 착수했다. 오는 광복절 전후로 예고했던 당 쇄신안 발표는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인 오는 26일로 미뤄질 전망이다.

박종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준

조강특위 위원들의 신분 변동으로 새롭게 조강특위 위원들을 임명하고 의결했다”고 말했다.

조강특위는 7인 이내로 구성된다. 정희용 사무총장이 기존대로 위원장을 맡고, 강명구 조직부총장과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 외에도 구자근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김태규 의원과 최기식 경기 의왕과전 당협위원장, 박내경 경기 부천갑 당협위원

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조강특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여곳에 달하는 사고 당협의 조직위원장 인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내년 4월 보궐선거가 확정된 강원 강릉 당협위원장 선임의 윤곽이 주목된다.

새 조강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여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활동 일정과 조직 정비 방향 설

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는 오는 26일께 후반기 당 운영 방안을 국민과 당원에게 공개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임 기자회견담회 형식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당 쇄신안을 오는 15일(광복절)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대여(對與)투쟁에 더 힘을 실기 위해서 당 쇄신안 발표 시점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